하나님 선생님의 복음개론 첫 수업

(사무엘상 3:1~21)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선생님의 복음개론 첫 수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선생님의 복음개론 첫 수업'
하나님께서 오늘은 선생님으로 등장하셔서 복음개론으로 첫 수업을 하십니다.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프로이센과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확장 정책에 맞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 프로이센의 막강한 군사력이 프랑스를 이깁니다. 알자스-로렌 지방이 독일에 속하게 되고 프로이센이 프랑스어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의 광경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남자 초등학생 프란츠로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공부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하는 어린이입니다. 여느 날과 똑같은 마음으로 학교에 왔는데 교실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프랑스어 수업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 프란츠는 프랑스어로 수업을 할 때에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고 후회를 합니다. 12시를 알리는 소리가 울리고 프로이센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멜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는 수업이 끝납니다.
이 소설을 우리가 특히 공감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점은 알퐁스 도데가 '첫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소설을 하나 더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

합니다. 이제까지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교실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독일어로 하는 첫 수업의 광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프란츠가 동일한 교실에서 독일어 첫 수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심리와 태도묘사가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첫 수업의 내용이 독일 역사였을지 아니면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려는 내용이었을지 궁금한데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마지막 수업과 첫 수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이 진행됨과 동시에 끝이 나야 합니다. 마치 프랑스어로 수업하던 것이 독일어로 바뀌는 것처럼 되어야 하는데, 신앙인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수업이 있고 첫 수업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기 시작할 때에 첫 수업으로서 주어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열두 살이 된 시기로 여겨집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열두 살부터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사무엘도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 봉사직무를 수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열두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성소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밤중에 오십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부르실 때에야 비로소 바르게 응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관습상 성년 취급을 하지만 열두 살이면 아직 미성년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이 어린아이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어둡고 참혹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첫 만남인데 이왕이면 가볍고 밝고 행복하고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미있는 내용이면 안 됐던 것일까요? 열두 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고 인생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자던 열두 살 아이를 깨워서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할 참혹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1~1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라고 하시는데 엘리 집안에 내리실 멸망의 말씀입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은 엘리 집안에 내릴 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접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와 전율로 인해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실로에 있던 중앙 성소가 파괴됩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같은 날에 죽게 됩니다.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고, 엘리의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 멸망의 이야기를 열두 살짜리 사무엘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선지자로 예정된 자입니다.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에서 주신 말씀은 희망과 비전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더군다나 이 멸망하는 엘리는 사무엘에게는 아버지 같고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은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로서는 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자신의 멸망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것이 분명한데 세 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9년이나 지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게 멸망의 예언을 전한 것도 엘리가 다그쳐서 할 수 없이 말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엘리 집안의 멸망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수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쓸 것이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첫 수업의 내용은 말씀 드린 대로 사무엘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멸망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시려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철저히 망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답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2:12,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참혹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첫 수업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제사는 선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본래의 운명대로 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참혹한 멸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참혹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제사를 존중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 수업의 내용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복음개론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망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해서 망한다.’라는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 집안이 망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왜 첫 수업으로서 사무엘에게 모든 인간에게 참혹한 멸망이 주어질 것임을 가르치셨을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과 제사는 선민에게만 주어진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엘리가 망하는 것은 계시된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가능성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열두 살까지 크는 동안에 자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 아버지와 어머니 한나의 자식이고, 엘리를 보면서 나의 사상적이고 영적인 아버지이고 멘토로 여겼을 것이고,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형제와 같은 존재들로 느끼고, 성소에서 살

아가는 모습들이 사무엘의 자아의식을 만들었을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므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아의식들과는 다른 자아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관계 밖에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인간은 생래적으로 '멸망이 결정된 자'라는 자아의식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처럼 참혹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 모습임을,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무엘에게 첫 번째 지식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일 수는 없었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파워풀하지 않은 이유는 생래적으로 '참혹한 멸망이 합당한 자'라는 자아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엘리가 알면서도 아들들의 죄악을 방치한 것이고, 그렇게 참혹한 멸망을 받아야 될 죄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인데 홉니와 비느하스를 보면 압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빌3:18~19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로 내 마음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혹한 멸망으로 결정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전이나 지은 후나 똑같이 마음이 진공상태로 피조되었습니다. 이 진공상태에서 인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진공상태인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 진공상태를 끝끝내 채울 수 없다고 느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채우려고 하다 못 채우니 허무함에 자살을 합니다. 허무한 삶에는 아무런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은 채우려고 사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타락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의 좋고 나쁨을 내가 판단하면서 마음의 진공상태를 채우면 만족하겠다고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혹한 멸망으로 정해진 길을 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붙들고 그 돈을 벌어서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돈을 아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서 싫다는 여자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쫓아가는데 이것이 그 여자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일 없지만 자식만큼은 잘 길러서 내가 이루지 못한 생의 성공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식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좋아하고 진공상태를 채울 수 있겠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이 있으면 그것이 앎이고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공상태를 채워줄 만족의 대상임을 믿고 그래서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하는 이유는 이 기쁨과 만족과 연결되지 않으면 복음의 생활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덴도 '기쁨'이라는 뜻이었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사함은 끝이 아닙니다.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결합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평생 설교를 들어도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없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유전 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 육체의 5감각으로 접하는 세상 것들을 붙잡고 기뻐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내가 끊임없이 죽는 제사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내가 마음에 돈을 품었으면 돈을 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참혹한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자식을 품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 멋진 명품 백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서 나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명품 백을 소원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만족에 연관시키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을 소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없고 결국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했던 엘리 집안의 모습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제자이고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며 성전에서 세살부터 컸지만 '멸망할 엘리 집안과 같은 운명을 지닌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돈과 고기를 알고 육체의 소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제사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두 번의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중앙 성소의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내가 양이 되어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할 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으로 기뻐하면 안 되냐며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자식과 관계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사업하세요. 결혼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가운데 아내와 남편을 얻어서 살아야 진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이미 만족한 가운데 사업을 해야 진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자식 없이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자식을 길러야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 성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쁘고 행복해서 목회를 해야 진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첫 수업은 멸망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열두 살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첫 수업을 통해서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같이 이 첫 수업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